

해외자원개발 과감한 전략으로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 김진우



우리나라는 경제규모가 세계 12위권이지만, 이 권역에 있는 국가 중 에너지 자급률이 가장 낮다. 세계은행이 161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원유가격 변동에 가장 취약한 국가군에 속해 있다. 취약성의 수준도 한국(5.7)은 일본(2.7)과 중국(3.0)의 거의 두 배나 높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보다 취약성이 높은 나라는 사실상 최빈국들 외에는 없다.

지난 3~4년간 우리나라의 해외자원개발 역량은 크게 신장됐다. 석유·가스 자주개발률이 4~5% 수준에서 지난해에는 14%로 상승되고, 해외에서 광구를 확보하는 데 든 연간 투자비도 20억달러 수준에서 100억달러 대로 확대됐다. 그러나 경쟁국에 비하면 우리의 자원개발 수준은 아직 갈 길이 멀다. 현재 96%의 에너지를 해외에 의존하는 것이 우리나라 자원개발 사업의 상황이다.

해외자원개발은 에너지안보 증진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산업진흥 측면에서도 반드시 육성해야 할 분야이다. 포천지가 선정하는 세계 10대 기업에 엑슨모빌, 셸과 같은 자원개발 기업들이 거의 매년 5~6개씩 포함돼 있다. 그만큼 자원개발은 고부가가치 산업임을 가리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자원개발을 추진하게 되면 광구설비 수출 확대와 철도·항만·발전소 같은 대규모 건설, 인프라투자와 연계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중앙아시아나 아프리카 등 개도국형 자원부국에서 광구개발을 추진하면 우리 기업의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고, 나아가 한국 브랜드가 상승하면서 다각적인 경제협력을 증진시키는 효과도 일으킨다. 이런 효과를 실현하여 우리나라의 자원개발 역량을 높여야 한다.

수많은 자원개발 사업에서 사실상 우리 기업이 주도권을 갖고 운영하는 사업은 얼마 되지 않는다. 그만큼 세계 자원개발 사업들은 강대국들이 선점하고 있다. 침예한 국제 자원정세에서 자원개발 역량이 경쟁국 수준 만큼 높아질 때까지 우리의 약점을 보완해 주는 것이 자원외교다. 자원개발 사업은 대부분 자원부국 집권자의 영향력 아래에 있기 때문에 자원외교를 통한 긴밀한 파트너십 형성은 우리나라와 같은 후발주자가 광구확보의 문을 여는 열쇠인 것이다.

우리나라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지난 수년간 정부 주도의 자원확보 정책 추진으로 급격한 도약의 시기를 맞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정책혼선도 있었고 자원개발 사업을 주도한 공기업들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되기도 했다. 이에 적절한 금융시스템을 통해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 나가야 한다. 또 자원부국과 협력을 강화하는 외교를 통해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고, 해외자원개발 역량을 높이는 체계적인 전략으로 더욱 과감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